

1/4/14

설교 제목: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전하는 이: 김순배 전도사

말씀: 여호수아 3:1-17

- (수 3:1)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숫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 (수 3: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절관주** 수 1:10, 수 1:11
- (수 3: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절관주** 수 3:11
- (수 3: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 (수 3: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 (수 3: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절관주** 민 4:15
- (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 (수 3: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절관주** 수 3:3
- (수 3: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 (수 3: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 (수 3: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 (수 3: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절관주** 수 4:2
- (수 3: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절관주] 시 78:13
- (수 3: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 (수 3: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절관주] 렘 12:5, 렘 49:19
- (수 3: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 (수 3: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2015 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인 2015 년을 향한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기에 TV 등 매스컴에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2015 년 새해 전망에 대해

이말 저말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지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펼쳐진 2015 년 새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새해 희망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두렵고 떨리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5 년 한해 동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너무 걱정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벧전 4: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 4: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파도타기 해 보셨지요?

산더미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막거나 피하려 하면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빠져 물을 먹고 넘어지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파도가 집채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 오히려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집채만한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썩피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로 하나님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 3: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수 3: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을 쫓으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너희가 이전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아니더냐? 그러니 내가 직접 인도해 주겠다 나만 따라 오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5 년 미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600 여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430 년간의 종살이에서 힘들게 빠져나와 40 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이제야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자리잡고 살고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들의 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200 만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느냐?

큰 난관입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요즈음 물이 말라서 요단강이 개천 정도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 3: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때는 4 월경인데 이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때쯤이면 요단강은 북쪽 레바논 헬몬 산지에서 녹아내리는 눈과 늦은 비로 인해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 여만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이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가? 어차피 40 년을 기다렸는데.... 등등의 불평이 나올 법도 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다 망하는 것을 지켜 본 세대이기에 우리들은 아버지
세대와 같이 되지 말자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싯딴으로부터 요단에 이르러서도 3 일간이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3 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1."그 뒤를 따르라"

(수 3: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수 3: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동안 모세를 시종들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켜 보면서 자신도 깊은 영성을 키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 자기 장막으로 쉬러간 그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장막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출 33:11).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삼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신 약속을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난관을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되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천 규빗 즉 900-1000 미터쯤 떨어져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에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00 여만명이 움직이는데 언약궤와 붙어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 따르는 백성들은 정작 언약궤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뒤를 따르라"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2.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수 3: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성결케 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인간이 성결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 합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그 복을 담을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결케 하느냐고요?

첫째,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릇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 내가 즐기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습관들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점검하며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운 만큼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세째,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 장 5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20)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3. "요단에 들어서라"

(수 3: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물살이 센 요단강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물살이 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돼요.

지난 번 홍해에서처럼 갈라주시면 모를까?"

"하나님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급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오던 물이 그치고 아담 성읍 근방에 댐처럼 쌓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려던 곳이 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역사가 재현된 것입니다.

언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릴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담대하게 내딛었던 것처럼 요단 강 바닥에 담대하게 서 있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을 건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와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함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2015 년 어떠한 놀라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1)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비전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1:2)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1: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사명으로 만듭니다.

2) 비전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돕는 분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 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이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란 구별된 민족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3)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합쳐져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하는 열쇠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히브리서 11 장 6 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4)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닦친 난관 또한 능히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넘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둑까지 넘쳐흐르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같이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삶 속에 경험되는 다양한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5 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